

# 음악은 잘 사는데 꽤 쓸모가 있다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애호가로서 일평생 음악을 들어왔고 두 권의 음악 칼럼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속절없는 음악사랑이 때로는 일과 연관되어 밥벌이 삼아 음악을 다룰 때는 기분이 알쏭달쏭해지곤 했다. 그래도 음악은 언제나 내게 사적인 영역이었다. 개인적 취향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 유연성·창의성을 북돋아주는 음악

언제부터일까. 더 이상 음악애호가 개인의 몫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간혹 기업체에서 강연요청이 들어올 때 주제를 예술 체험이나 음악감상으로 삼아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특히 그러하다. 음악과 기업활동, 여기에 어떤 매개고리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오늘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삶의 기반은 단연 시장이다. 미신과 인습에 지배받던 먼 옛날도 있었고, 근대국가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동안 권력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단연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자본시대의 도래 이래 세계 경제체제가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대 국민의 관계를 기업 대 소비자의 관계로 대치시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이 대혁신의 요구를 받은 첫 번째 시점으로 1987년. 그러니까 본격적인 소비사회가 이 땅에 도래한 시기를 떠올릴 수 있다. 소비자가 생산활동의 중심에 올라서는 대전환이 요구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두 번째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격적인 디지털 문명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사회의 틀을 깨는 제2차 변신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산-소비가 상호의존관계로 변신하는 일이 대두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생산-소비관계의 상호의존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매개체로 등장하며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문화예술 분야이다. 문화예술은 이전까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던 분야였다. 하지만 '혁명'으로까지 표현되는 이 전환기에 음악, 미술, 영상 등이 갖고 있는 속성은 생산활동의 틀을 짜는 기본 베이스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생산활동의 주체들이 문화예술의 효용성에 대해 갖는 관심은 상상 이상으로 커 보인다.

내게 사적 관심사였던 음악을 효용성이라는 각도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음악은 더 이상 순수의 이름으로 개인의 감성적 영역이나 교양의 함양에 머물 수 없다. 어쩌면 음악의 이해는 우리 당대의 존재방식의 핵심원리에 다가서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추상성'의 가치와 원리를 체득하는 일이다. 조직의 방식, 생산성, 의사소통, 이 모든 것에서 음악이라는 추상적 매체를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음악체험이란 차고 딱딱한 것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음악에는 비언어적 질서가 있고 비고정적인 의미소가 있으며 비일상적인 시간이 담겨 있다. 음악체험이란 고착화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해보는 일이다. 개인적 단위나 사

회활동에서 유연성을 부여해 주고 창의성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 음악체험이 필요한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음악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먼저,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예술일반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음악은 특히 자신의 고정관념을 응시해 볼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학교시절에 배운 초보적인 음악사 상식을 통해 보아도 항상 새로운 사조가 전시대 사조의 틀을 혁파하고 나온다. 구체적인 곡을 통해 그 같은 과정이 인식되는 순간이 있다. 혹은 익숙한 곡이라도 새로운 연주자에 의해 전혀 다른 느낌의 해석이 전해져 올 때 그 감흥은 대단히 커다란 것으로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동구권 냄새'가 나는 음악에 각별한 애착과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표준적이고 정형화된 듯한 서구의 세련됨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안겨준다. 꽤 거칠고 격정적인 듯한 분위기 속에 특유의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동구권 냄새'이다. 아름답다거나 조화롭다고 표현할 때의 스탠다드를 비켜선 새로움인데 가령 작곡가로는 야나체크, 바르토크, 코다이, 마르티누 등을 들 수 있다. 체코어, 헝가리어 등 현지 언어로 쓰인 이들의 오페라를 감상할 때는 베르디나 푸치니 오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걱정적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대중음악이나 민속음악 역시 이들 동구권 지역만의 독특한 정서가 따로 있다.

음악감상 체험이 필요한 또 하나의 부류로 리더십이 요청되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억압적 강요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집단이 통솔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소통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필요한 소통능력은 지식이나 권위와는 맥락이 다른 감성적 성격의 것이다. 음악 혹은 예술체험을 통한 소통은 감동하는 능력에서 찾아진다. 감동은 부풀어진 정서적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의 면모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시야를 가졌을 때 감동이 찾아온다. 남보다 더 많이 보고 더 크게 느끼는 것이 감동하는 행위다. 음악에서의 감동이 바로 그것이다. 음악이 주는 감동의 순간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조직을 통솔할 때 어떠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는지 의외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체험

이 필요하다. 음악은 시와 같이 특유의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장르이다. 오늘날과 같이 생산활동에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그 구조의 핵심적 특성과 모순을 간파해내는 직관력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음악을 감상할 때 동원되는 직관력은 예컨대 복잡다단한 업무나 조직 특성을 간파하는데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이 필요한 또 하나의 부류로 의욕과 창의성이 고갈된 사람을 들 수 있다. 음악감상은 특별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뜻한다. 이 특별한 시간을 다른 말로 '의미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의미시간의 체험은 일상적 시간 혹은 물리적 시간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면서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준다. 마치 여행이 그러하듯이 이 같은 차원이동이 삶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고갈된 창의성에 신선한 자극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음악의 효용성을 나열해 보는 가운데 또 하나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을 향할 수 있다. 끝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적대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수가 많다. 타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이 같은 부정적 심리는 '자기세계'라는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음악적 감동은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며 세속적 우월성을 매우 초라하게 인식하는 잦대도 형성시켜 준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몰입하며 솟구치는 자아의식을 체험했다면 자기 존재의 초라함에 더 이상 묶이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다.

시장이 지배하는, 이해타산의 원리에 지배받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음악 혹은 예술은 그 같은 원리의 경계 바깥에 놓일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이 자기기만일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사회 속에 음악이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나 지금이나 음악은 동일하건만 그것의 역할과 효용을 시장적으로 재규정해보는 것이다. 나는 음악에 현실적 쓰임새가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글쓴이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하다'의 자문위원 및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시칼럼집 '나는 왜 나여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